



파워인터뷰

이주호 부총리(교육부 장관)와의 만남

이주호(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고영선(한국교육개발원 원장)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디지털 대전환,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심화된 사회적 양극화 등 전례 없는 시대적 도전이 교육의 전환점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교육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교육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는 ‘모두를 위한 맞춤형교육 달성’이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학생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암기 위주의 수동적인 학습 환경에서 벗어나 참여와 주도성을 기반으로 한 교실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맞춤형 학습을 통해 공교육 체계의 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적합한 미래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발전특구’와 대학과 지역이 협력하는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체계’를 통해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는 교육이 단순히 개인의 발전을 넘어 지역과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과제로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 <파워인터뷰>에서는 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장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만나, 교육 개혁의 핵심 과제와 성과, 그리고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이주호 부총리는 교육의 대전환을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교육의 길을 열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지금이야말로 과감한 변화를 추진해야 할 결정적 시기임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교육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교육개혁’을 꾸준히 추진

고영선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내시고 12년 만에 다시 교육부 수장으로 복귀하셨는데, 취임하시고 현재까지 역점을 두었던 일과 그간의 소화에 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취임한 후 지난 2년간, 우리나라 교육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교육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등 현장의 모든 구성원이 보여준 관심과 협조 덕분에 교육개혁의 기반이 어느 정도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특히, 어려운 교육개혁의 과정을 가까이에서 함께 하고 있는 우리 교육부 직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계기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취임 후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잠자는 교실’을 깨우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의 미래 핵심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실 수업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암기 위주의 일방향적 수업 등 소위 ‘잠자는 교실’을 벗어나, 학생들이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실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에는 모든 국민이 공감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학생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도록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교권추락, 사교육 카르텔 등 우리 교육이 당면한 여러 문제가 심화된 공교육 체계의 위기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공교육의 정상화와 교육 현장 회복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장관직을 수행할 당시에도 지금처럼 교육 변화에 대한 요구가 많았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필요성과 강도가 더욱 커졌음을 실감합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 심각해졌으며,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같은 시대적 도전에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임기를 수행하면서 이러한 위기들을 기회로 바꾸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좀 더 과감한 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이야말로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적기라고 봅니다.

교육정책은 국민의 관심이 높은 분야인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맞춤형교육 달성을 목표로 총 3대 분야, 9개의 과제 설정

고영선 2024년은 교육개혁이 곳곳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는 해가 될 수 있도록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와 공고한 파트너십을 통해 주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관련하여 교육개혁 9대 과제에 관해 간단한 설명과 올해 성과는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주호 교육부는 교육개혁으로 사회 난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비전 아래,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 달성’을 목표로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개혁 과제를 총 3대 분야, 9개의 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제들은 각각 우리 교육이 직면한 주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우선 ‘국가책임·교육 돌봄’ 분야에서는 유보통합 실현과 늘봄학교 확산을 통해 공교육이 돌봄과 교육의 출발선을 평등하게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보통합은 생애 초기 건강한 성장과 배움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30년간 구현하지 못했던 과제였습니다. 올해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지원 부처를 교육부로 통합하고, ‘유보통합 지원계획’을 발표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늘봄학교는 올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29.3만 명, 전체의 82.7%)에게 매일 2시간 이상의 무료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며,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현장의 담대한 변화’ 분야에서는 교사가 주도하는 교실혁명, 입시개혁, 그리고 소통 강화를 위한 ‘함께학교’가 주요

과제입니다. 특히, ‘함께학교’는 서이초 사건 이후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개설된 온라인 소통 공간으로, 누적 방문 283만 회와 905건의 정책 제안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 제안된 ‘나이스 온라인 출결관리 시스템 적용’,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 등은 실제 정책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들이 다른 걱정 없이 학교현장에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교육활동 보호 5법을 개정하는 등 현장에 제도가 안착 중입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비하여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선도교사 연수를 진행하며 교실 혁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과 국가의 동반 도약’ 분야에서는 지역의 특수성과 자원을 활용한 교육발전특구, 글로벌대학, RISE 체계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RISE 체계는 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여 지역과 대학이 협력적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안으로, 내년부터 전국 17개 모든 시·도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교육개혁은 인구 감소, 공교육 위기, 지역 소멸 등 심각한 사회적 난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해법입니다. 정부는 교육개혁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 과도한 교육 경쟁 완화, 지역 성장 동력 창출, 사교육 부담 경감 등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올해에도 많은 성과가 창출되었습니다. 유보통합과 늘봄학교의 확산은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루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준비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등은 교육현장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현장과 소통하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지역이 고안한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 모델 실현

고영선 교육발전특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주호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 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가

이루어지는 체제를 만들어가는 정책입니다. 기본적으로 교육 발전 특구는 세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추진됩니다. 먼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상향식으로 지역교육발전전략을 설정하고,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간의 협력을 강화하며, 초·중등 교육과 대학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식을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교육발전특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역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지역이 고안한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 모델들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지역주도형 교육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전국으로 확산하여 교육이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촉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가 지역에 뿌리를 내려 지역교육혁신과 우수인재 양성이라는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에서 제안한 다양한 특례를 반영한 교육발전특구 특별법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교육발전특구 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늘봄학교를 통해 교육의 출발선에서 형평성을 높이고, 교육 격차를 해소할 것

고영선 2024년 2학기에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전면 시행되었는데, 저출생 문제 해결에서 나아가 앞으로 늘봄학교의 역할에 관해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주호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시간 외에도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돌봄을 제공하여 교육의 출발선에서 형평성을 높이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줄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교육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1학년을 우선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는 초등학교 1~2학년으로 확대되고, 2026년에는 지원 대상이 초등

전학년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간, 인력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 안정적인 늘봄학교 운영 체계를 갖추고,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청별 전문 분야의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한편, 지역 대학의 우수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발굴·제공하기 위한 국고 예산도 320억원 편성하였으며※ '25년 늘봄 프로그램 관련 예산: 16개 부·처·청 협업 예산 108억 원, RISE 체계 연계 예산 212억 원) 프로그램 외에도 공간, 인력 등 필요한 자원을 교육청, 지자체, 관계 기관 등과 협업하여 충분히 제공할 계획입니다.

**‘잠자는 교실’을 깨우고,
개별 맞춤 수업을 통해 학습하는 교실이 될 것**



고영선 교육과정을 혁신하는 자율형 공립고 2.0이 기존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와 어떤 점이 변화되었는지, 또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으로 앞으로 교실 현장에서 이루어질 변화에 관해서도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주호 자율형 공립고 2.0은 기존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와 비교해 혁신적인 변화가 도입된 모델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지자체뿐만 아니라 대학·기업·법인 등 다양한 주체와 협약을 체결해 교육혁신을 실현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학교운영위원회를 대체하는 ‘협약·운영위원회’를 통해 협약기관이 주도적으로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과정과 교원 인사에서 자율성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사고나 특목고 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교사 100% 초빙, 산학겸임교사 임용, 개방형 교장 공모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의 도입은 교실 현장의 변화를 더욱 가속화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개별 학습 수준과 속도에 맞는 맞춤형교육으로 보다 쉽게 개념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개념을 기반으로 수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교사 역시 AI 디지털교과서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통해 학생 개개인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토론과 프로젝트 학습 등 다양한 참여형 수업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학생의 학업적 성취뿐 아니라 사회정서적인 부분까지 코칭(Coaching)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보다 흥미를 갖고 수업에 참여함으로써 ‘잠자는 교실’을 깨우고, 개별 맞춤 수업을 통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학습하는 교실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RISE 체계를 통해 ‘지역인재양성-취·창업-정주’로 이어지는 지역발전 생태계 강화

고영선 지자체가 지역발전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와, 이를 위한 지원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주호 교육부는 RISE 체계를 통해 지역 주도의 대학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인재양성-취·창업-정주’로 이어지는 지역발전 생태계를 강화하여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권한을 지역에 위임하고,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지역과 대학이 중심이 되어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대학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RISE 체계의 성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자체와 대학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는 대학과의 협력적·수평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지역의 수요와 발전 전략 등을 고려한 RISE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대학도 자신이 가진 강점과 자원을 지역의 발전 전략에 연계하여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① 「지역정주형 인재양성」(예) 1시군-1대학-1기업 연결로 ‘인재양성-취·창업-정주’ 원스톱 해결

- 대학이 없는 지역과 도내 대학의 연결로 주력산업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소멸대응기금(행안부)을 정주여건 개선에 활용

② 「지산학연협력 생태계 구축」(예) 산학연 협력 얼라이언스 고도화로 주력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 반도체·AI 등 강점 산업분야의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학을 국내·외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 등이 입주하는 클러스터로 조성

③ 「직업·평생교육의 혁신」(예) 공무원·연구원 등이 많은 인구 특성을 반영한 평생교육 추진

- 관내·외 공무원, 국책연구단지 은퇴자들을 활용한 사회 환원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④ 「지역현안해결」(예) 원도심-신도심 격차 해소를 위해 대학 역량 적극 활용

- 대학이 지역 주민과 함께 원도심 재생 등 지역이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싱크탱크(리빙랩)로 기능

<4대 프로젝트별 시그니처 과제(예시)>



선생님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며 함께 고민할 때, 진정한 변화의 시작

고영선 ‘함께차담회’를 통해 매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소통 강화에 힘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현장소통을 중요시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이주호 작년 어느 젊은 선생님의 안타까운 일이 교육계는 물론 우리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교육부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은 왜 이렇게까지 힘들어졌을까’를 살펴보니, 바로 ‘소통의 부재’라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통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로 결심했고, 이를 위해 ‘함께학교’라는 소통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더불어, ‘함께차담회’를 통해 아무리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매주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있습니다. 처음 만나뵈었던 선생님들 중에는 눈물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후배 선생님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함과 자신도 느끼고 있는 무력감이 한꺼번에 표출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그간 마음에 쌓인 응어리를 함께 나누면서, 조금씩 마음의 짐이 풀리고 상처가

회복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소통의 힘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지 개인적인 치유를 넘어,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선생님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며 함께 고민할 때,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교육의 힘을 통해 우리나라의 새로운 도약이 가능하다는 의견에 크게 공감

고영선 부총리께서는 책을 ‘퍼즐 조각’이라 하시며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게임과 같은 삶에서 책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탐구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매년 인생책으로는 「대한민국 선진화 전략」을 첫 번째로 추천하곤 하시는데, 관련하여 부총리께서 인상 깊게 읽으신 부분과 인생책이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주호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뛰어난 교육열을 바탕으로 교육이 국가 발전을 뒷받침하여 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압축적인 경제발전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외면된 채 남아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저출생,

지역 소멸 위기, 낮은 사회 이동성, 우울 등 다양한 사회적 난제들이 오늘날 뚜렷이 드러나고 있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선진화 전략」의 저자는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특히 ‘교육의 힘’을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꼽았습니다. 저자의 의견과 같이, 교육의 힘을 통해 우리나라의 새로운 도약이 가능하다는 의견에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사회적 여건 속에서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사회적 난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힘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이 가져올 수 있는 변화와 가능성을 믿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제 의지와 이 책의 메시지가 맞닿아 있습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을 위한 맞춤 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

고영선 경제학자이자 교육자로서, 그리고 두 차례 교육부 장관을 역임하시며 남다른 교육관과 교육철학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평소 부총리께서 갖고 계신 교육관과 교육철학이 궁금합니다.

이주호 저는 학자이자 정책전문가로서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특히,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교육에 대한 투자는 개인의 성공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인 사회·경제적 난제를 해결하는 핵심입니다.

그러나, 그간의 지나친 평등주의와 획일적인 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교실 현장의 붕괴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수업 현장의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I 디지털기술의 활용은 학생 맞춤형 교육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AI 디지털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선생님은 학생들의 학습 성향과 진도를 바탕으로 학습을 디자인하고, 이를 통해 학습자의 자율과 선택권을 존중하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수업의 변화는 단순히 기술적 도입에 그치지 않고, 교사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수업 모델에 대한 연구 지원 등 교사를 중심에 둔 교육패러다임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육은 많은 힘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교사들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우수하다고 자부합니다. 최근 AI 디지털교과서 선도교사 연수에서 1만여 명의 열정적이고 유능한 선생님들이 모인 모습에서 학생을 위한 교실혁명의 열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교육이 ‘학생 한 명 한 명을 위한 맞춤 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선생님, 학부모님, 그리고 지역사회의 노력들이 교육현장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

고영선 양질의 공교육 제공을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고 계신 교육청,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들과 교사, 그리고 함께 협력해나갈 학생과 학부모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이주호 그동안 중요한 교육 정책들이 현장에서 차근차근히 실행될 수 있었던 것은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님, 지역사회 모두의 관심과 협조 덕분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는 ‘함께차담회’와 같은 다양한 소통 기회를 마련하여 교원·학생·학부모의 현장 의견을 꾸준히 청취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교육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은 AI 디지털교과서와 고교학점제 도입 등 본격적인 교실 혁명과 RISE 체계의 전국 가동 등 여러 굵직한 과제들이 현장에 본격 도입되는 해입니다. 교육현장에 계신 교육 관계자분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학생, 선생님, 학부모님, 그리고 지역사회의 노력들이 교육 현장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육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의 귀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적된 자료·통계를 디지털 자산화하여 미래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기를 기대

고영선 앞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의 역할 혹은 한국교육개발원에 바라는 점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국 교육 발전을 위해 어떠한 연구가 필요한지, 또 교육정책 및 여러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도 제안 또는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이주호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 분야 연구와 혁신을 통해 교육개혁의 동력을 제공하는 핵심기관입니다. 우수한 연구인력은 물론, 52년간 축적된 교육 분야 연구자료, 통계 데이터, 글로벌 네트워크 등이 한국교육개발원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대전환 속에서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이나, 전반적인 한국교육(K-Edu)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그간 축적된 자료·통계를 디지털 자산화하고, 이를 분석하여 미래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내년 5월 제주에서 개최되는 '2025 APEC 교육장관회의'는 한국교육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세계에 선보일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교육개발원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다면, 한국교육의 가치를 더욱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교육부도 한국교육개발원과의 정책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기관의 발전과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Profile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요 경력

- 2022.11 ~ 현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2019. ~ 2020.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2015. ~ 2022. 글로벌교육재정위원회 위원
- 2014. ~ 2018.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장
- 2010. ~ 2013.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2009. ~ 2010.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 2008.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 2004. ~ 2008. 제17대 국회의원
- 2003. ~ 2004.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교육개혁연구소장
- 2001. ~ 200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자문위원
- 2000. ~ 2001. 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 편집위원
- 1998. ~ 2022.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학력

- 1990. 미국 코넬대학교 경제학 박사
- 1985. 서울대학교 경제학 석사
- 1983. 서울대학교 무역학과 학사
- 1979. 청구고등학교 졸업

